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1, pp.361-370, January 31, 2022.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361
JCCT 2022-1-41

# 스타트업 창업자의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Founders' on Startup Succ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Trust in the Business Model

이일범*, 강민정**, 김지웅***

**Lee Il Bum*, Kang Min Jung**, Kim Ji Woong*****

**요 약** 본 논문은 창업자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대한 분석을 통하여 스타트업 창업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확인하여 창업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내적 요인(자금조달능력, 위험감수성)과 외적요인(창업환경,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공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금조달능력과 위험감수성, 창업환경과 창업지원정책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부분매개로 창업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 전문역량과 도전정신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완전매개로 창업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창업전문역량, 위험감수성, 창업지원정책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신뢰를 부분매개로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쳤으며, 도전정신과 창업환경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신뢰를 완전매개로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어** : 스타트업, 창업전문역량, 자금조달능력,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창업환경, 창업지원정책,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자기효능감,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신뢰, 창업성공

**Abstract** This paper suggested a plan to increase the start-up survival rate by identifying independent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 start-up success through analysis of the founder'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internal factors (financial ability, risk sensitivity) and external factors (start-up environment, start-up support policy) had a direct positive (+) effect on start-up success. Meanwhile, self-efficacy for business model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financing ability, risk sensitivity, start-up environment and start-up support policies) and start-up success. Self-efficacy for business model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start-up expertise and challenge spirit) and start-up success. Finally, trust in business model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start-up expertise, risk sensitivity, and start-up support policies) and start-up success. And the trust in business models fully mediated the factors(the spirit of challenge, start-up environment) and start-up success.

**Key words :** Startup, Start-up Expertise, Financing Ability, Challenging Spirit, Risk Sensitivity, Start-up Environment, Start-up Support Policy, Self-efficacy for the Business Model, Trust in the Business Model, Start-up Success

*정회원, 이드로경영파트너스(주) 센터장 (제1저자)
**정회원, 국립목포대학교 부교수 (교신저자)
***정회원, 디지털경영혁신연구소 대표 (참여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본 논문은 이일범의 2021년도 박사 학위논문에서 발췌 정리하였음.)

Received: December 31, 2021 / Revised: January 5, 2022
Accepted: Januar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7minjeong@hanmail.net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okpo National Univ, Korea

# Ⅰ. 서 론

창업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이자 미래 세대를 향한 국가적 R&D 투자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창업지원정책의 활성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창업진흥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지자체와 사회적 기관 등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창업 현실은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KOSIS, 20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업의 생존율이 창업 이후 2년 내 49.5%, 5년 내 창업 생존율은 27.5%로 조사되어 창업 이후 생존율이 매우 낮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보고서(2019)에 따르면 소상공인으로 구분되는 대다수의 창업자들이 생계를 해결하고자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하여 이로 인한 물적, 인적 손실을 초래해. 결국 개인의 삶의 성장의 기회 박탈과 국내 경제의 역동성 저하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주요 당면한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기업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공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응하려는 활동으로 끊임없이 기업 목표를 수정하며 재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세우며, 시장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에 대해 차별적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환경변화와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기업의 생존 수단이다.

창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창업의 개념은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창업자가 사업아이디어와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 창업성공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창의적 도전 자세와 위험을 감수하려는 창업자의 정신과 기업의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기술적 혁신과 팀의 열정적 조직문화를 창조하며 시장에서의 고객 욕구를 분석하고 해법으로서의 아이템을 차별적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 경쟁사보다 우월적 위치에서 포지셔닝 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업교육과 효과성 간의 관계 및 창업 효능감, 창업의도, 핵심역량, 기업성과 등과 같은 핵심 변인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2,3].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의도, 창업환경 등의 논의로서 근본적인 창업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창업성공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창업성공을 위한 독립변수들이 어떤 매개 변수를 통하여 직, 간접적으로 창업성공에 이르는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이 기회형 창업에 이르기 위한 시장에서의 기회를 포착하고, 창업성공을 위한 핵심역량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고객의 요구를 아이템으로 만들어 시장적합성을 높인 스타트업 창업성공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본 논문은 창업의 현장에서 느꼈던 창업 성공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독립변수들과 매개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성과 유의성 등을 분석하고자 내적 요인으로 기술과 전문성 기반으로 하는 창업전문역량, 예비창업 단계에서부터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조달능력,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정신, 기꺼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역량을 외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는 창업환경과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핵심역량으로 설정하였다. 내·외적 요인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신뢰를 매개로 스타트업 창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창업전문역량

창업전문역량과 관련하여 세계 경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지식경제에서 창의경제로 이동하는 추세에 따라 핵심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성장 동력이 혁신에서 창의성으로 변환되고 있으며 가치의 창조가 지식과 정보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전환되는 세계사적 흐름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1].

창업전문역량은 제품의 개발과 생산과 관련된 제반 기술 능력을 기술적 역량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 역량과 조직 구성의 정도를 지칭하는 조직적 역량으로 구분된다[4]. 백서인·이성민·장현준(2012)은 창업가의 핵심역량이 창업과 벤처 성공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였다[5].

2. 자금조달 능력

자금조달은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스타트업 초기의 창업지원자금과 성장단계별 사업규모에 따른 적절한 시기에 자금의 조달의 여부는 기업성장의 가능성을 밑받침하고 있기에 기업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6]. 스타트업 초기 기업은 사업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한 기본 자원이 단계별로 반드시 필요하며, 기업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자금이 단계별로 적시에 투입되지 않으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경쟁사 대비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7].

자금조달역량은 예비창업자의 스타트업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제품 개발과 광고, 마케팅 등과 팀구성을 위한 인적 자본 모집에 투자하는 장점과 이점을 가지고 있고, 개발 단계에서는 R&D, 시장 조사 등에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 미래에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8]. Lee et al.(2001)는 스타트업, 벤처에 투자하는 지분투자는 기업의 재무적 자원과 관리 경영기법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경영의 합법성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며, 투자한 벤처캐피탈 회사는 벤처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례에 따른 경영 관련 노하우를 제공하고 벤처를 적기에 도울 수 있는 유력한 전문가를 통한 지원방안으로 벤처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8].

3. 도전정신

성공한 기업가들은 험난한 창업과 성장 과정의 역경을 딛고 남다른 행동력으로 미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낸 창조적 혁신가이자 창조적 파괴자들이다[1]. 또한 그들은 목표 지향적이며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도전과 노력을 기울인 기업가들에 해당한다.

장영미(2018)는 도전정신에 대하여,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성(risk)에도 개인이나 조직의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적극적 자세와 태도라고 분석하였다[9].

4. 위험감수성

지각된 위험이란 기대 손실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효용을 지각하는 것이다[10]. 정두식(2016)은 사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기업가의 내재된 특성으로서 위험감수성은 예민하게 의사결정에 반응하며 신속하게 결정하여 기회를 포착하려 하지만, 모든 일에 신중하고 주의 깊게 살피는 과정을 통해 방어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가리킨다고 하였다[11]. 장창권(2017)의 연구에서는 창업이나 경영을 하는 경우 재무적이나 사회적인 또는 심리적 위험 등 다양한 위험들을 직면하고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창업가가 감당하는 과정에서 위험감수성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현되는 창업가의 특성으로 정의하였다[12]. Oosterbeek et al.(2010)은 불확실성에의 대처능력 그리고 기꺼이 기회를 위해 손실을 감내하고자 하는 의지를 위험감수성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이 성공적 기업가에게 핵심역량이라고 분석하였다[13].

5. 창업환경

창업 환경은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그중 내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요인으로서 성별이나 나이, 학력과 소득 및 가족관계와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 등이 해당된다[14]. 윤방섭(2004)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5].

6. 창업지원정책

스타트업의 시장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금융지원과 R&D 지원을 지원정책으로 제시되었다[16]. 이희경(2017)은 국가 경제를 회복하며 신사업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의 수단으로 창업을 재인식하고, 창업시장의 정보의 비대칭과 실패 위험 등으로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창업시장에 개입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창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7].

7.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제안과 고객의 역량을 중요하게 강조하지만 전략은 이에 반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략과 달리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지향적인 새로운 가치창출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18]. Chesbrough(2010)는 기업들이 외부인을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활용하여 상품화하는 것을

개방형 혁신이라 정의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19].

8.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특별한 상황에서 개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지에 대한 대안을 찾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다[20]. 이를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적용해보면, 자기효능감이란 창업자의 사업 분야에서 창업전문역량을 기반으로 창의적 사고와 행동으로 미래 기업가치 창출을 통하여 성공하려는 열망과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광의의 개념에서는 자아개념인 동시에 자신이 가진 고유한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학습의 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21].

9. 신뢰

신뢰는 기업 내 조직간 상호 협력에 관한 믿음이며 기업의 협력 파트너와 관련 산업 내 기업들 간 상호 신뢰이며, 스타트업, 1인 기업에 있어 창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 이다. 기업 간의 R&D, JIT, 기업의 관계마케팅을 적용할 때에도 신뢰는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는 요소로서, 상호조직간 신뢰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휴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22] 신뢰는 또한 사회 집단(역사, 가족, 친구, 공동체, 조직, 기업, 국가 등) 간 또는 내부의 관계에 기인한다[23].

## III. 연구 방법

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연구모형으로 재현하자면 아래와 같다. <그림 1>의 연구 모형을 근거로 하여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1. 창업자의 핵심역량(창업전문역량·자금조달역량·도전정신·위험감수성·창업환경·창업지원정책)은 스타트업의 창업성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창업자의 핵심역량(창업전문역량·자금조달역량·도전정신·위험감수성·창업환경·창업지원정책)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스타트업 창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창업자의 핵심역량(창업전문역량·자금조달역량·도전정신·위험감수성·창업환경·창업지원정책)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하여 스타트업 창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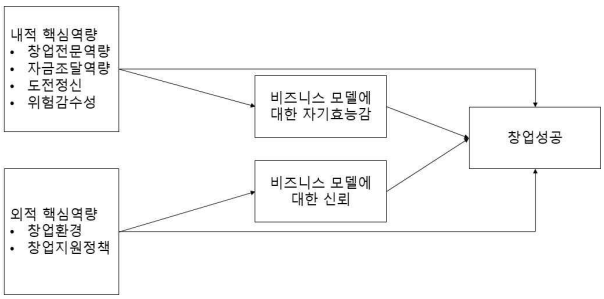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측정도구

본 논문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자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이를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 활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각 요인들이 제공되는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각 변수에 대한 설문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측정 문항
Table 1. Measurement Questions

| 변수 | 문항 |
|---|---|
| 창업역량 | 나는 창업기회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br>나는 창업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br>나는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 창업교육을 통해 배울 것이다. |
| 자금조달역량 | 나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br>나는 창업에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지원제도를 알고 있다.<br>나는 창업에 다른 자금부족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
| 도전정신 | 나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br>나에게는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그것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다.<br>나는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매우 노력한다. |
| 위험감수성 | 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지향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이다.<br>나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br>나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불확실한 위험을 다소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창업환경 | 우리나라에서는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다고 생각한다.<br>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생각한다.<br>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
| 창업지원정책 | 나는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이 도움이 되었다.<br>나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정책이 도움이 되었다.<br>나는 정부의 조세혜택 지원정책이 도움이 되었다. |
|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효능감 | 고객의 다양한 수요들을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통합할 수 있다.<br>제품(서비스)과 정보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롭게 조합될 수 있다.<br>비즈니스 모델 덕분에 거래를 할 때 생기는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
|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신뢰 |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한다.<br>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한다.<br>고객이 제품(서비스) 및 우리 회사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적 애착과 감정을 가지도록 노력한다. |
| 창업성공 | 동종, 동업종의 경쟁회사와 비교하여 우리 회사의 제품(서비스)의 편익이 더 좋다.<br>동종, 동업종의 경쟁회사와 비교하여 우리 회사의 고객 만족도가 더 높다.<br>동종, 동업종의 경쟁회사와 비교하여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가 더 높다. |

3. 자료 분석 방법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교육을 수료하고 start-up 및 1인 기업을 창업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전남창조혁신센터의 2019 ~ 2021년 예비창업자 부트캠프 수료자를 중심으로 면담과 이메일, 카톡 등을 활용 175부를 배포하여 137부를 회수하였으며, 그중 불성실한 답변 8부를 제외한 129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 기간은 2021년 1월 7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총 83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Statistics 23 통계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2.16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 Hayes (2013) 방법을 실시하였다. 타당도 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방식을 사용하였다[24].

## Ⅳ. 연구방법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빈도분석에서는 남성이 51.9%(67명), 여성이 48.1%(62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9세 30.2% (39명), 30~39세 32.6%(42명), 40~49세 29.5%(38명), 50~59세 5.4%(7명), 60세 이상 2.4 %(3명)으로 청년창업자가 39세 이하 81명(62.8%)이며 시니어창업자는 40세 이상으로 41명(37.2%)로 구성되었다.

현재 거주 지역은 전라도 76.0%(98명), 기타 지역 24%(31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용형태는 정규직 0.8%(1명), 비정규직 0%(0명), 계약직 13.2%(17명), 임시직 25.6%(33명), 기타 60.4%(78명)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사업을 위한 현황을 살펴보면, 아이디어 도출단계 3.1%(4명), 아이템 확정 8.5%(11명), 비즈니스 모델, 창업교육 수료 65.9%(85명) 기타 22.5%(29명)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자금 규모에서는 5,000만원 이하 19.4%(25명), 1억 이하 49.3%(61명), 2억 이하 28.9%(31명), 3억 이하 8.5%(11명), 3억 이상 0.8%(1명)으로 조사되어 1억 이하가 66.7%(86명) 1억 이상이 33.3(43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입에 대한 조사 결과는 150만원 미만 19.4%(25명), 151~200만원 28.7%(37명), 201~300만원 34.9%(45명), 301~400만원 13.2%(17명), 401만원 이상 3.9%(5명)으로 나타났다. 사업 년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예비창업자 10.1%(13명), 6개월 미만 24.8%(32명), 1년 미만 45.0%(58명), 3년 미만 17.8%(23명), 3년 이상 17.8%(23명)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원래 변수들의 분산 중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요인을 추출하고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는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을 회전기키는 베리맥스 회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류는 고유값이 1이상일 때 하나의 요인으로 구정하였고, 요인 적재량이 4.0을 초과하면 해당 구성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창업자의 창업성공에 미치는 핵심역량 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KMO 척도는 0.814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측정변수의 공통성은 .570에서 .806으로 나타나 모두 기준 값인 0.4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창업전문성, 자금조달능력,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창업환경, 창업지원정책의 6개 요인이며,

전체 18개 문항에서 5개 문항이 제외되어 추출되었다. 총 분산의 누적설명력은 68.095%로 나타났다. 타당성 검정결과 각 요인들은 비교적 높은 적재치를 보여 수렴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창업자의 핵심역량 요인 항목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검증결과
Table 2. The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erification of the Founder's Core Competency Factor Items

| 요인 | 변수명 | 요인적재량 | 공통성 | 고유값 | 분산설명력 |
|---|---|---|---|---|---|
| 창업전문성 | 창업전문성1 | .724 | .570 | 1.815 | 14.307(%) |
| | 창업전문성2 | .690 | .682 | | |
| | 창업전문성3 | .675 | .635 | | |
| 자금조달능력 | 자금조달능력1 | .861 | .807 | 1.133 | 9.592(%) |
| | 자금조달능력2 | .044 | .586 | | |
| | 자금조달능력3 | .754 | .733 | | |
| 도전정신 | 도전정신1 | .890 | .806 | 0.968 | 6.194(%) |
| | 도전정신2 | .017 | .670 | | |
| | 도전정신3 | .022 | .694 | | |
| 위험감수성 | 위험감수성1 | .629 | .739 | 1.239 | 10.449(%) |
| | 위험감수성2 | .797 | .718 | | |
| | 위험감수성3 | .395 | .602 | | |
| 창업환경 | 창업환경1 | -.268 | .618 | 1.044 | 7.583(%) |
| | 창업환경2 | .671 | .662 | | |
| | 창업환경3 | .160 | .688 | | |
| 창업지원정책 | 창업지원정책1 | .664 | .703 | 1.625 | 13.312(%) |
| | 창업지원정책2 | .698 | .628 | | |
| | 창업지원정책3 | .736 | .680 | | |
|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척도: 0.814<br>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공: 877.515 | | | | | |

표 3.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Table 3. The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erification of the Business Model

| 요인 | 변수명 | 요인적재량 | 공통성 | 고유값 | 분산설명력 |
|---|---|---|---|---|---|
|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효능감 | BM자기효능감1 | .268 | .632 | 2.764 | 31.068(%) |
| | BM자기효능감2 | .637 | .583 | | |
| | BM자기효능감3 | .811 | .659 | | |
|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신뢰 | BM신뢰1 | .688 | .567 | .571 | 31.562(%) |
| | BM신뢰2 | .135 | .647 | | |
| | BM신뢰3 | .814 | .668 | | |
|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값: .776<br>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값: 156.980 | | | | | |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항목별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3>과 같다. 분석 결과, 비즈니스 모델 자기효능감과 신뢰의 변수들의 요인 적재량 값이 0.5이상으로 나타나 가설 검증 문항으로 적합하다 판단하고 최종연구의 측정항목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신뢰성 분석 결과, 창업전문성 0.667(3문항), 자금조달능력 0.739(2문항), 도전정신 1(1문항), 위험감수성 0.719(3문항), 창업환경1(1문항), 창업지원정책 0.778(3문항),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효능감 0.572(2문항),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신뢰감 0.49(2문항), 스타트업 창업 성공 0.672(3문항)으로 나타나 Cronbach's α 계수는 0.5이상으로 수준의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 V. 가설 검증 결과

### 1. 창업자의 핵심역량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창업전문역량, 자금조달능력,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창업환경, 창업지원정책이 스타트업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다중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추정식을 이용하는 회귀분석이며 여러 개의 독립변수 중에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적합한 모형을 밝히는 통계적 방법이다[24]. 모형의 F통계량 값은 13.805로 유의수준 0.001% 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 설명력은 .406으로 유의수준 .001%로 창업전문역량, 자금조달능력,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창업환경, 창업지원정책이 스타트업 창업성공을 40.6%로 설명함을 알 수 있다. 변수들의 회귀계수(ß)를 살펴보면 창업전문역량, 도전정신이 스타트업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수준 5% 이하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지원정책이 스타트업 창업성공에 가장 크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204, p=0.14). 또한,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기업 창업 성공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ß=.178, p=.015). 한편, 창업환경이 높을수록 스타트업 창업 성공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ß=.168, p=.009). 자금조달능력은 스타트업 창업 성공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ß=.167, p=.003).

표 4. 스타트업 창업 성공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tartup Success

| | ß | S.E | t | p |
|---|---|---|---|---|
| 상수 | 1.975 | .513 | 3.848 | .000 |
| 창업전문역량 | -.008 | .071 | -.120 | .905 |
| 자금조달능력 | .167 | .054 | 3.078 | .003 |
| 도전정신 | .009 | .014 | .642 | .522 |
| 위험감수성 | .178 | .072 | 2.478 | .015 |
| 창업환경 | .168 | .063 | 2.649 | .009 |
| 창업지원정책 | .204 | .082 | 2.481 | .014 |

## 2.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창업자의 핵심역량 요인이 스타트업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비즈니스 모델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가설을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시한 SPSS Process macro Version 4.0을 활용하여 매개모형(mediation model 4)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25]. SPSS PROCESS Macro는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효과 크기를 비표준화계수로 제시하며, 간접 효과 값이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과 하한값 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25]. SPSS Indirect macro의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5,000회 재표본 작업을 실시하였다. 창업자의 핵심역량(창업전문역량·자금조달역량·도전정신·창업환경·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공의 관계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유의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는 <표5>에 제시되어 있다.

<표5>에 제시되어 있는 창업자의 핵심역량의 하위요인이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거쳐 탕업성공으로 가는 각각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자의 핵심역량(창업전문역량·자금조달역량·도전정신·위험감수성·창업환경·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공의 관계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는 95%신뢰 구간이 각각 H2-1(0.0574, 0.2458), H2-2(0.0122, 0.0987), H2-3(0.0080, 0.1745), H2-4(0.0755, 0.2527), H2-5(0.0587, 0.2222), H2-6(0.0328, 0.2150)으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전문역량과 도전정신은 창업성공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여 스타트업 창업성공에 연결되는 매개경로가 완전 매개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의 PROCESS macro에 의한 검증(Model = 4)
Table 5.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Business Model by PROCESS macro macro

| 구분 | 경로 | Bootstrap 추정치 | | 95%신뢰구간 | |
|---|---|---|---|---|---|
| | | ß | S.E. | LLCI | ULCI |
| H2-1 | 창업전문역량→비즈니스모델 자기효능감→창업성공 | 0.1402 | 0.0476 | 0.0574 | 0.2458 |
| H2-2 | 자금조달능력→비즈니스모델 자기효능감→창업성공 | 0.0567 | 0.0266 | 0.0122 | 0.0987 |
| H2-3 | 도전정신→비즈니스모델 자기효능감→창업성공 | 0.0174 | 0.0553 | 0.0080 | 0.1745 |
| H2-4 | 위험감수성→비즈니스모델 자기효능감 →창업성공 | 0.1545 | 0.0449 | 0.0755 | 0.2527 |
| H2-5 | 창업환경→비즈니스모델 자기 효능감 →창업성공 | 0.1294 | 0.0414 | 0.0587 | 0.2222 |
| H2-6 | 창업지원정책→비즈니스모델 자기효능감 →창업성공 | 0.1080 | 0.0455 | 0.0328 | 0.2150 |

## 3.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

Bootstrap Samples는 5000개이고, 95% 신뢰구간 기준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의 하·상한 값은 <표6>에 나타냈다.

표 6.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의 PROCESS macro에 의한 검증(Model = 4)
Table 6.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on the Business Model by PROCESS macro

| 구분 | 경로 | Bootstrap 추정치 | | 95%신뢰구간 | |
|---|---|---|---|---|---|
| | | ß | S.E. | LLCI | ULCI |
| H3-1 | 창업전문역량 →신뢰 →창업성공 | 0.1155 | 0.0570 | 0.0109 | 0.2360 |
| H3-2 | 자금조달능력→비즈니스 모델 신뢰→창업성공 | 0.0731 | 0.0503 | -0.0049 | 0.1935 |
| H3-3 | 도전정신→비즈니스 모델 신뢰→창업성공 | 0.0142 | 0.0436 | 0.0066 | 0.1457 |
| H3-4 | 위험감수성→비즈니스 모델 신뢰 →창업성공 | 0.1614 | 0.0449 | 0.0812 | 0.2562 |
| H3-5 | 창업환경→비즈니스 모델 신뢰→창업성공 | 0.0506 | 0.0364 | -0.0087 | 0.1323 |
| H3-6 | 창업지원정책→비즈니스 모델 신뢰 →창업성공 | 0.1991 | 0.0523 | 0.1021 | 0.3070 |

분석결과, 창업자의 핵심역량(창업전문역량·도전정신·위험감수성·창업지원정책)은 매개 변인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 신뢰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성공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각각 H3-1(0.0109, 0.2360), H3-3(0.0066, 0.1457), H3-4(0.0812, 0.2562), H3-6 (0.1021, 0.3070)으로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전문역량과 도전정신은 창업성공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신뢰를 높여 스타트업 창업성공에 연결되는 매개경로가 완전 매개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Ⅴ. 결 론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트업 창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자금조달능력, 위험감수성, 창업환경, 창업지원정책이 스타트업 창업성공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창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창업지원정책(ß=.204, p<.05), 위험감수성(ß=.178, p<.05), 창업환경(ß=.168, p<.01), 자금조달능력(ß=.167, p<.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조달능력은 스타트업 창업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창업자의 의지가 높아질수록 창업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업자의 외적 요인인 창업환경, 창업지원정책 변수 모두 창업성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영미(2018)와 임교순·전인오(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창업자의 핵심역량 요인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스타트업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내적 핵심역량 모든 요인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스타트업 창업성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스타트업 창업자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제고하면 창업성공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지원사업 등을 통한 창업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때 비즈니스 모델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창업자의 핵심역량 요인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스타트업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창업전문역량·도전정신·위험감수성·창업지원정책 요인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스타트업 창업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신뢰는 자금조달능력·창업환경과 창업 성공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조달능력과 창업환경이 견고할수록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창업성공에 대한 다양한 인과관계를 연구하였으나 독립변수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절대적 지표로서 한계가 존재하므로 창업 성공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밀한 성과 기반의 변수 발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추후 해당 연구가 수행되고 요인별 인과관계가 밝혀진다면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논문은 표본의 지역적 제한으로 창업자의 전체 특성이 고르게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성장단계별 분류를 바탕으로 지역별 안배 등을 통하여 보다 더 고도화된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실증연구 지표 수집을 위한 설문을 진행함에 있어 그 대상을 2019~2021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부트캠프 수료자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교육 이수자를 전제로 표본의 정확성은 담보할 수 있지만 다양한 변인을 얻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과정별 참가자 간의 상이점과 이에 근거한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하고 인과관계분석을 고도화하여 가설 검증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도 부분의 확장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1] G.S. Han, Business Startup & Entrepreneurship, Epress, 2017.

[2] E. C. Rideout, and D. O. Gray, "Does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ally work? A review and methodological critique of the empirical literature on the effects of university-bas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51, No. 3, pp. 329 - 351, 2013.

[3] I.S. Jo, and H.H. Oh,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upport System," *Journal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search*, Vol. 22, No. 6, pp.87-102, 2019.

[4] C.G. Kim, C.S. Lee, and J.S. Kim,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Early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Vol. 21, No. 5, pp. 63-86, 2014.

[5] B.S. In, S.M. Lee, and H.J. Jang, "Exploratory Research on the Entrepreneurship and Work Experience: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Opportunity Exploration, Opportunity Realization, Risk Management Strategy,"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Vol. 37, No. 2, pp.107-146, 2015.

[6] L.S. Baek, and H.S. Yang, "The Affects of Characteristics of CEO, Competence on Corporate Strateg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Venture Compan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22, pp.145-154, 2013.

[7] H.Y. Lee, A Study on the Eentrepreneurial Competency Model for Successful Growth in New Technology-based Ventures, Joongang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8.

[8] C. Lee, M. Lee, and J. Pennings, Internal capabilities, external networks, and performance: A Study on Technology-based Ventur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2, No. 6-7, pp .615-640, 2001.

[9] Y.M. Jang, The Effects of Senior's Internal and Eexter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Hoseo Ventur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9.

[10]E.J. Lee, and W.J. Shim, "A Study on the Effect of Perceived Amount of Information in a Fashion Crowdfunding Project on Perceived Risk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3, pp.365-374, 2021.

[11]D.S. Jung, "An Empe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Start-up Intention - Focu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areer Orientation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Vol. 29, No. 4, pp.1565-1586, 2016.

[12]C.K. Jang,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Competence of Small Business on Business Performance, Soongsi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7.

[13]H. Oosterbeek, M. van Praag, and A. Ijsselstein,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Skills and Motiv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54, No. 3, pp.442-454, 2010.

[14]W.J. Kim,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Strategic Orientation on the Firm Performance :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Digital Literacy and Learning Orientation, Joonang University, 2016.

[15]B.S. Yoon,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Vol. 17, No. 2, pp.89-110, 2004.

[16]J.K. Shin, "R&D Intensity and Innovation in the SMEs -The Moderating Effects of Policy Supports-,"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Vol. 15, No. 1, pp.119-132, 2008.

[17]H.G. Lee,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erformance in Technology-based Start-up Eenterprises : Focused on the Eeffects of the Government Ssupport Policy, Kore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7.

[18]G.M Mansfield, and L.Fourie, "Strategy and Business Models-Strange Bedfellows? A Case for Convergence and Its Evolution into Strategic Architecture. South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Vol. 35, pp.35-44, 2004.

[19]H. Chesbrough, "Business Model Innovation: Opportunities and Barriers," *Long Range Planning*, Vol 43, No. 2-3, pp.354-363, 2010.

[20]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 H Freeman/Times Books/ Henry Holt & Co, 1997.

[21]A.C. Park, "Validation of Korean Adolescent Ego-identity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7, No. 3, pp.373-392, 2003.

[22]J.H. Dyer, "Does Governance Matter? Keiretsu Alliances and Asset Specificity as Sources of Japanese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 Science*, Vol. 7, No. 6, pp.649-666, 1996.

[23]M. Song, "Trust-based Business Model in Trust Economy: External Interaction, Data Orchestration and Ecosystem Valu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6, No. 1, pp.32-41, 2018.

[24]S.Y. Hwang, D.J. Shin, J.K. Oh,, Y.S. Lee, and J.J. Kim, "A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Dropout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 20, No. 4, pp.187-193, 2020.

[25]A.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 -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2013.